

뮤지엄 공간의 가변적 활용 특성에 관한 연구

-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Quality of Variable Space for the Museum Space

- Focused on Educational Space -

정 화* / Zheng Hua

이성훈** / Lee, Sung-Hoon

Abstract

Museum has been advanc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ociety, playing a role of social education for people as a public place.

However, many museum have limited which does not allow the museum to act various roles for public needs such as resting, entertaining, educating. Accordingly, this research has intention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museum cannot satisfy public various needs by functional adaptation of the space; the theory of variable spa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try to fi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from museum space through research about Spatial variability and to analyze expression special quality of museum that is used as variable.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lay the foundation of Variable application technique of educational space of museum hereafter.

키워드 : 뮤지엄, 교육공간, 가변성

Keywords : Museum, Educational Space, Flexibil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뮤지엄의 의미 및 기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왕족, 교회, 부호 등 특정된 계급만이 누릴 수 있었던 “창고형 뮤지엄”이 공공성을 가지면서 대중을 향한 사회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 시대의 문화적 면모를 대변하는 뮤지엄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의 제공, 휴식과 여가, 오락의 기능이 함유된 다양한 문화향수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점차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뮤지엄들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변화와 다양한 요구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대응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기능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변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의 기능상 요구에 따른 공간가변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뮤지엄 공간에서의 문제점들과 해결

책을 찾아보고, 또한 사례를 통하여 현재 가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뮤지엄 공간의 표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뮤지엄 교육공간의 가변적 활용수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뮤지엄 교육공간의 가변적 활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뮤지엄의 사회적 역할의 변천에 따른 뮤지엄 교육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공간에서의 적응성을 지닌 “가변성”과 뮤지엄 교육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가변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둘째, 심승현, 윤성호의 선행연구 “現場調査에 의한 뮤지엄의 機能分類單位에 대한 基礎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의 용도변경여부에 초점을 두고 용도변경의 비율을 고찰해봄으로써 뮤지엄 교육공간의 공간 효율성과 가변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승현, 강건희의 선행연구 “博物館에 있어서의 機能分類單位와 規模와의 相關性에 대한 基礎的 研究”를 바탕으로 현실시점에서 가변적 활용이 시급한 뮤지엄의 규모범위와 기능단위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를 파악하였는데, 초대형과 대형 뮤지엄에서는 대부분의 교육 기능공간을 어느 정도 이미 갖추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대형과 대형을 제외하고 공간의 효율적 유용성이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중규모이하의 국내 뮤지엄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고, 교육공간 중 가장 많이 쓰이고 활용되고 있는 강당과 세미나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뮤지엄은 년대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1989년, 1990년도에 지어진 뮤지엄과 15년을 사이 둔 2004년, 2005년에 지어진 중규모의 총4개 뮤지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2008년 4월 26일에서 5월 6일까지의 현장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교육공간에서의 가변적 활용실태를 알아보고 분석하여 현재 뮤지엄 교육공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변적 활용방식과 그 한계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뮤지엄 교육공간에서의 가변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2. 뮤지엄 공간 및 가변성에 관한 기초 연구

2.1. 뮤지엄의 기원과 사회적 역할의 변천

고전적 의미에서 '뮤지엄(Museum)'은 현대의 개념과 달리 신에게 바치기 위한 "수집품" 그 자체를 의미 하였다. 그 후 뮤지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기능이 조금씩 변해 갔으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뮤지엄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기원전 285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궁전에서 미술품을 모아놓고 문화와 철학을 연구하는 장소 '뮤세이온(Mouseion)'을 설립함으로써 문헌상 최초의 기원을 갖는다. 1)

시대 변화에 따른 뮤지엄의 사회적 역할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대변천에 따른 뮤지엄의 역할 변화

시대	뮤지엄의 역할
고대 그리스	아카데미한 역할, 문화예술품 보관의 기능
로마	개인 소유물의 보관
중세	종교적 부속물, 종교적인 성물의 제작, 보관
르네상스	역사적 산실, 교대유물 보관
산대륙 발견	사회적의미를 가지기 시작
17세기 후반	뮤지엄의 공공 시설화
프랑스 혁명이후	사회교육 시설
20세기 이후	문화축매공간으로서의 뮤지엄 전문성을 띤 대중 교육공간

2.2. 현대 뮤지엄의 사회적 요구 성향

뮤지엄의 역사로부터 알 수 있듯이 뮤지엄의 의미와 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뮤지엄은 단순한 저장이나 수집공간이 아닌 문화적 관심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향수의 장으로 발전되었다.

1) 李樹暎, 박물관학 입문(서울:심화출판사), 1981, p.31.

그러나 문화축매공간으로서의 뮤지엄은 점차 전문성을 띤 대중 교육공간으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의 제한으로 전문성을 지닌 대중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뮤지엄은 이러한 변화와 다양한 요구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2.3. 뮤지엄에서의 교육공간

현대 뮤지엄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능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뮤지엄 본연의 기능인 전시보존기능 이외에 교육적 기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뮤지엄의 교육공간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학술행사, 집회 등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강당, 세미나실, 도서실이 대표적이며, 크게는 집회시설, 집회부속시설,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어린이 교육시설, 도서실로 분류²⁾된다.

뮤지엄의 규모별 교육공간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규모유형에 따른 교육공간의 분포비율

구분(연면적)	교육공간의 분포비율		
	외국	미국	한국
초대형 (20,000m이상)	4-5%	-	-
대형 (6,000m-20,000m)	13-17%	-	-
중형 (2,000m-6,000m)	5-6%	-	-
소형 (1,000m-2,000m)	7-9%	-	-
극소형 (1000m이하)	-	-	-
평균	6%내외	10-15%	5%이내

<표 2>를 보면 외국사례에 비해 한국의 뮤지엄 교육공간은 그 분포가 취약함³⁾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여건상 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교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4. 뮤지엄 공간에서의 가변성

(1) 가변성의 기본개념

가변성은 다양한 공간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성(Variability)과 변화에 순응 내지는 적응한다는 변화의 적응성(Adaptability)으로 정의된다.⁴⁾

공간의 가변성은 공간의 변화 요구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관련되어 건물이 확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장을 수용할 수

2) 심승현, 뮤지엄 教育領域에 대한 實態 調査 研究,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7호.

3) 박석수, 미술관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4) 구본재,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론, 1996, pp.5-6.

있다는 확장성(Expansibility), 공간구획과 관련되어 공간의 전환을 통해 기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환성(Convertibility), 공간용도와 관련되어 다기능공간을 통해 가장 경제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성(Versatility)으로 구분된다.⁵⁾

(2) 뮤지엄 공간에서의 가변성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는 뮤지엄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 공간구조에서 탈피하여 관람자의 요구에 보다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가변적 뮤지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뮤지엄 공간에서의 가변성이란 뮤지엄 내부공간의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대한 응용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동, 분할·조합, 배치가변을 통해 뮤지엄 공간의 확장성, 전환성, 다기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변적 뮤지엄 공간은 크게는 시대, 작가는 관람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임의대로 재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3) 뮤지엄 공간의 가변적 활용에 적용 가능한 가변요소

뮤지엄 공간의 가변적 활용에 적용 가능한 가변요소로는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 창, 벽체, 바닥, 가구, 천장 등이 있다. 각 요소와 적용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 출입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서 가변성을 띤 사례로는 회전가능한 문, 미닫이 등이 있다.

벽체-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로서 이동 가능한 벽체, 수납 가능한 벽체, 가동칸막이, 이중벽체 등이 포함된다.

창 및 천정- 조명 및 자연채광, 환기, 디자인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창은 문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실의 내외의 경계를 주거나 없애거나 한다.

바닥- 마감재료의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중바닥, 수납 가능한 바닥 등이 가변성을 띤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구- 이동 가능한 가구들을 통하여 공간의 변화를 구획할 수 있으며 접기 가능한 가구, 수납용 가구, 칸막이가구 등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작용을 한다.

3. 뮤지엄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3.1. 뮤지엄의 공간효율성에 따른 가변적 활용의 필요성

시대의 요구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뮤지엄 기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심승현, 윤성호의 연구⁶⁾에서는 도면 사례분석에 의해 파악된 기능분류단위와 현장 사례분석에 의해 나타난

기능분류단위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규모별 변경비율에 초점을 두고 재 고찰하였는데 이는 뮤지엄 교육공간의 공간 효율성 및 다목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조사결과를 본 연구주제에 따라 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뮤지엄 공간에 있어서 교육공간 사용실태 조사

뮤지엄명 준공년도	구분	변경비율 (%)	교육공간 변경사항		
			도면내용	현재상황	참고사항
국립현대미술관 1986	초대형	40	조각실	조각실 등	용도변경
국립민속박물관 1993	대형	17	-	세미나실	용도변경
서울대학교박물관 1993	중형	36	직원도서실	-	용도변경
해강도지미술관 1990	소형	50	시청각실	-	용도변경
			영사실	-	용도변경
토탈컨템포러리 미술관 1992	극소형	92	-	강의실	증축
			도서관	-	용도변경

조사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필요여부, 뮤지엄의 연령에 따른 낙후화, 실제 운영 중에 발견된 부족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보충과 해결 등의 원인으로 기존 뮤지엄들의 용도변경율이 높아지고 있고 둘째, 공간 문제 해결 시 면적상 제한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뮤지엄 일수록 용도변경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시대요구에 따라 교육시설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조차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뮤지엄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을 필요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효율성이 증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뮤지엄 공간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세우며, 대중 뮤지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제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와 요인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뮤지엄 교육공간에서의 가변적 활용대상 선정

3장 1절에서 뮤지엄의 규모가 작을수록 용도변경비율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절에서는 현시점에서 가변적 활용이 시급한 뮤지엄의 규모를 재검증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적인 기능단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⁷⁾를 바탕으로 교육공간의 규모별 기능분류단위의 개수를 <표 4>로 정리해보았다.

5)William Pena, 김관욱·차재영 역, 건축설계방법론, 집문사, 1989.

6)심승현·윤성호, 現場調査에 의한 뮤지엄의 機能分類單位에 대한 基礎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11집, 1998.

7)심승현·강건희, 博物館에 있어서의 機能分類單位와 規模와의 相關性에 대한 基礎的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5호, 통권103호, 1997. 5.

<표 4> 뮤지엄 교육공간의 규모별 기능분류단위 개수

규모구분 기능분류단위	규모별 유형					합계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극소형	
사례개수	4	15	9	12	7	47
시청각실	1	1	1	6	1	10
강당	3	12	6	0	2	23
대강당	2	2	1	0	0	5
영사실	2	4	0	2	1	9
음향실	2	1	0	0	0	3
동시통역실	1	1	0	0	0	2
집회비품창고	4	7	1	2	0	14
강의실	2	4	1	0	0	7
실기실	1	3	1	0	2	7
세미나실	2	10	1	1	1	15
강사대기실	2	4	0	0	0	6
교육비품실	2	0	0	0	0	2
수강회원실	2	0	0	0	0	2
교수실	2	1	0	0	0	3
어린이전시실	1	0	1	0	0	2
어린이공작실	1	1	1	0	0	3
도서실	0	7	5	3	1	16
열람실	3	2	0	2	0	7
합계	33	60	19	16	8	136
갖추어지지 않은 항목 수량	1	3	8	12	12	-

<표 4>의 교육기능 분류항목 중에서 갖추어지지 않은 기능 항목수량을 규모별로 정리하였는데 초대형에는 1항, 대형에는 3항, 중형에는 8항, 소형에는 12항, 극소형에는 12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뮤지엄의 규모가 클수록 각 기능은 전문화되고 뮤지엄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요실 및 기능이 집약되어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 뮤지엄일수록 교육공간을 갖출 공간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7개 뮤지엄의 여러 교육시설 중에서 비교적 많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은 강당 23개, 도서실 16개, 세미나실 15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뮤지엄에 있어 가변적 공간 활용이 시급한 부분은 중규모 이하의 뮤지엄이며, 여러 교육시설 중 대표적인 것은 강당, 도서실, 세미나실임을 알 수 있다.

4. 뮤지엄 공간의 가변적 활용사례 및 특성분석

3장에서 분석결과에 따라 본 4장에서는 중규모 이하 한국 뮤지엄의 교육공간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시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9년에 지어진 롯데민속박물관, 1990년에 지어진 서울올림픽 기념관을 선정하였고 그때로부터 15년 후인 2004년, 2005년에 지어진 소마미술관과 서울대학교 미술관 이렇게 총 4개 뮤지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2008년 4월 26일에서 5월 6일까지의 현장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뮤지엄 교육공간에서의 가변적 활용실태를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공간의

사례들에서 가변요소를 도출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가변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가변성을 나타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 한 가변적 활용과정은 어떠한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분석<표 5>하였다. 또한 이런 분석을 통한 특성들을 <표 6>, <표 7>, <표 8>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의 사례 뮤지엄들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변요소, 가변방식, 가변성에 의한 특성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가변요소들의 사용빈도는 가구>바닥=벽체>창문=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변방식의 활용방법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가구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뮤지엄 교육공간의 가변목적은 공간의 확장성보다 공간의 전환성과 용도변경을 통한 다기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례 뮤지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변조합방법을 살펴보면 "가구-배치-다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오래된 뮤지엄 사례1과 사례2에 비해 최근에 지어진 사례3과 사례4의 가변적 활용이 더욱 계획적이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례4를 보면 실내공간요소를 직접 가변요소로 디자인하여 번거로운 가변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확장성과 전환성, 다기능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뮤지엄의 사회적 역할 변천에 따라 뮤지엄 교육공간에 대한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주어진 조건상 제한이나 투자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에 여러 가지의 요구를 담은 가변적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뮤지엄 사례들의 가변적 활용현황파악을 통해 뮤지엄 교육공간의 가변적 활용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 뮤지엄 교육공간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구-배치-다기능성"의 활용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인 공간구성계획과 평면계획 없이 다목적성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변으로서 필요에 따른 가구의 활용과 배치를 달리 하는 비교적 원초적인 가변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구배치를 통한 가변방식의 장점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조립과 사용에 관한 기술적 요구 없이 독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 배치에 따른 실내용도변화의 단점으로는 가변의 융통성이 없으며 공간을 비워야 할 경우, 가구를 보관할 장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5> 사례분석

* a:문 b:창 c:벽체 d:바닥 e:가구 f:천장 M:이동 P:분할/조합 A:배치 E:확장성 C:전환성 V:다기능성

사례명 개관년도,위치, 면적	교육공간 현황	시각적 자료	가변적 활용분석	분석내용
사례1 롯데민속 박물관 1989.1, 서울, 3,386	교육공간의 부족으로 홀을 어린이체 험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용도 강 당은 대어공간으로서 일정이 잡혀 있 는 날에만 공연이나 강연이 진행된 다. 교육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당은 활발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바닥이와 칸막이벽체로 공간을 분할하거 나 통합하였다. 바닥(무대) 을 분할/조합 하며 바닥마감재의 변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가구를 접어 숨기거나 재배치하 여 더욱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2 서울올림픽 기념관 1990.9 서울, 1,700	서울 올림픽 기념관의 세미나실은 필 요에 따라 강당과 소극장으로 사용된 다. 유지업 솜은 낮은 파티션으로 공 간을 나누어 휴게공간, 회의공간, 인 터넷 검색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 다.			낮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한 공 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가구를 바꾸어 실의 용도를 변경하 였고 바닥의 가구를 철거하거나 마감재를 변경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사례3 소미미술관 2004.9 서울, 3,300	소미미술관의 교육공간은 연중 내내 다양한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주관하 며,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번째 사진은 세미나실이며 두 번 째, 세 번째 사진은 세미나실을 강당 과 실외로 변경, 확장하여 사용할 때 의 모습이다.			창을 통해 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킴으로 서 외부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공간의 분할 조합이 용이 한 다기능적 공간을 만들었으며 가구를 바꾸어 용도를 변경하였다.
사례4 서울대학교 미술관 2006.6 서울, 1,357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교육공간은 지 형에 맞추어 조각난 매스에 의해 만 들어진 경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동선과 재료의 유기적인 연결로 구성 된 교육공간은 3층의 전시공간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디자인 되었다. 계 단강당은 수용인원에 따라 간이의자 를 사용하거나 한다.			교육공간과 전시공간의 구획이 필요에 따라 공간사용이 자유롭게 하였고 교육공 간의 바닥을 계단 겸 좌석으로 사용가능 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확장성과 다기능성 을 부여하였으며 가구를 통해 수용인원 조절을 할 수 있고, 가구 없이도 정상적 인 용도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디자인 된 교육공간이다.

<표 6> 가변요소에 의한 특성분석

가변요소	문	창문	벽체	바닥	가구	천정
사례1	●	■	●	●	●	■
사례2	■	■	●	●	●	■
사례3	■	●	●	■	●	■
사례4	■	■	■	●	●	■
활용차수	1	1	3	3	4	0

●: 사용(유) ■:미사용(무)

<표 7> 가변방식에 의한 특성분석

가변방식	이동	분할/조합	배치
사례1	2	1	1
사례2	■	■	3
사례3	2	2	1
사례4	■	■	1
적용차수	4	3	6

■:미사용

<표 8> 가변성에 의한 특성분석

가변성	확장성	전환성	다기능성
사례1	■	●	●
사례2	■	●	●
사례3	●	●	●
사례4	●	●	●
합계	50%	100%	100%

●: 유 ■:무

급증하고 있는 뮤지엄 교육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비해 이에 따른 공간적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실내구성요소를 최대한 다기능성을 가지게 계획한다. 둘째, 뮤지엄 교육공간에 적용 가능한 가변요소를 최대한 살린다. 즉 바닥은 가변수납형 바닥으로 벽체는 수납 가능, 이동 가능한 벽체로 사용하고 가구는 접기 가능 등 가변성을 가진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체적을 보장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각 가변요소들과 가변방식 그리고 가변성을 이용한 가변조합방식의 다양한 응용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가변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뮤지엄 교육공간의 사례들에 대한 가변적 활용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선진화되고 다양화되어 융통성 있는 뮤지엄 교육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뮤지엄 교육공간은 다양한 시설들의 유사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보다 합리화된 가변성 제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李蘭暎, 박물관학 입문(서울:심화출판사), 1981.
2. 심승현, 뮤지엄 敎育領域에 대한 實態 調査 研究,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7호.
3. 박석수, 미술관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4. 구분재,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론, 1996.
5. William Pena, 김관옥·차재영 역, 건축설계방법론, 집문사, 1989
6. 심승현·윤성호, 現場調査에 의한 뮤지엄의 機能分類單位에 대한 基礎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11집, 1998.
7. 심승현·강건희, 博物館에 있어서의 機能分類單位와 規模와의 相關性에 대한 基礎的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5호, 통권103호, 1997. 5.
8. 서은옥, 거주자 참여형 공동주택 실내공간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3.
9. 池炫政, 다목적강당의 계획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가변성 적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공학석사논문, 2005. 12.
10. 이현아, 현대사회에서의 뮤지엄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학원. 2003. 6.
11. 서상우, 현대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88.
12. 박준영 외 2인, 임대주택 수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가변적 공간구성 계획기법 개발연구, 대한 주택공사, 2003. 9.
13.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건축에 관한 계획학적연구, 홍대, 박사학위논문, 1988.